

한 해 농사 시작 알리는 농어촌공, 공사대표 통수식 개최

- “물 걱정 없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영농 지원 -



(사진설명) 한국농어촌공사는 21일 충남 서산 고풍저수지에서 안전 영농과 풍년을 기원하는 공사대표 통수식을 개최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21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충남 서산시 고풍저수지에서 공사대표 ‘안전 영농 지원 통수식’ 행사를 개최하고 농업용수 공급을 개시했다.

통수식은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지난해 겨울부터 단혀있던 수문을 열고 물을 처음 흘려보내며, 안전하고 풍요로운 영농을 지원하는 행사이다.

이날 통수식 행사엔 성일종 국회의원과 충남도 전형식 정무부지사, 이완섭 서산시장, 김맹호 서산시의회 의장, 농업인 단체장 및 지역 농업인 등 250여 명이 참석하여 마음을 보탰다.

행사가 열린 고풍저수지는 8백 36만³ 규모의 저수지로 서산시 운산면 고풍리 일원 수혜 구역 1,300ha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이병호 사장은 “공사는 한 해 안전하고 풍요로운 농사를 기원하는 통수식 행사 본연의 취지와 함께 최근 가뭄,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농업용수의 안전한 관리를 통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수자원관리처	책임자	부 장	고재한 (061-338-5541)
	수자원관리부	담당자	대 리	오상현 (061-338-5632)